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 땅끝까지 복음을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선교대회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세미나, 보고대회, 전시회 등

원로목사 · 당회장 동정

김창인 원로목사
· 29일 수원 삼일교회 설교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기도해온 선교대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성령 다가가 있다. 이 대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선교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며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도회원 및 실행위원, 청년,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열심을 다하였다. 비록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계획을 빗나가는 착오도 생기기는 하였지만 소속되어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인간의 힘보다 더 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한 채 한 치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며 마지막 남은 일들을 마무리짓고 있다.

선교대회 준비는 선교사들의 귀국으로 점차적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안식년 관계로 이미 귀국해 있는 안석렬 선교사와 지난 25일에 귀국한 육호기 선교사를 비롯하여 아직 입국하지 못한 선교사들 중 주강사인 미국의 NORTON 목사는 8월 29일에, 김주경 선교사는 8월 30일에, 서만수 선교사, 김은태 선교사는 8월 31일에, 이준교 선교사는 9월 1일에 각각 입국하게 된다.

선교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30일부터 선교대회가 끝난 9월 4일까지는 매일 새벽마다 선교대회를 더욱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새벽예배를 인도하게 되며 공식적인 선교대회 행사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9월 1일 저녁 5시에 선교사와 전교역자, 당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리셉션을 갖게 되며 이어서 수요일 2부 예배에는 주강사인 노튼 목사의 설교가 있게 된다. 이 모임 후에는 지금까지 매 주 수요일에 모여서 각 권별로 기도하던 선교 기도회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된다. 이 모임에는 자원하는 성도들이 모두 모여 동참할 수 있다.

9월 2일(목)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노튼 목사의 선교 특강이 있으며, 특강 후 약간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선교사들의 선교보고가 있게 된다. 이 시간은 이미 배포된 전단지 시간표와는 달리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변경된 시간을 보면 오후 3시 30분부터 김은태 선교사(홍콩), 안석렬 선교사(수리남),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선교보고가 있게 된다.

9월 3일(금) 오전에는 총회 선교국장인 강승삼 목사의 특강이 있는 후에 오후에는 이준교 선교사(이집트), 육호기 선교사(독일),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선교보고가 있게 된다. 약간의 휴식이 있는 후에 저녁 8시에 실시되는 금요일기도회는 선교를 위한 특별 집회로 모이게 되며 지난번에 간증한 바 있던 박은혜 전도사의 간증도 있게 된다. 선교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갈릴리홀 앞 복도에서는 선교 현지의 사진을 전시하며, 선교사님들이 친히 가지고 온 선교 물품을 전시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보답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선교 실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구본 저금통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게 된다.

9월 4일(토)에는 선교사들과 선교위원회 실무진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선교 정책을 논의하게 되며 이 모임을 통해서 중헌교회의 선교는 구체적인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며, 중헌교회의 선교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토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배가를 위해서 준비해 오던 일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지게 될 것이다.

9월 5일(주일)에는 각 선교사들은 그동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각 교회학교에 가서 설교 및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며 오후에 실시하는 청년부 집회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미래를 책임지고 가게 될 청년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는 작은 규모의 선교대회를 갖게 된다.

선교대회 일정표

시간	9/1(수)	9/2(목)	9/3(금)
10:00		특강I (Dr. Norton)	특강III (강승삼 목사)
12:00		점심	
13:00		특강II (Dr. Norton)	이집트(이준교) 독일(육호기) 인도네시아(서만수)
15:00		질의 및 토의	
15:30		홍콩(김은태) 수리남(안석렬) 이스라엘(김주경)	
16:00		Reception 선교사, 강사, 교역자, 장로	
17:00		석식	금요일집회 초청간증 (박은혜 선교사)
18:00			
18:30			
19:00	수요예배설교 (Dr. Norton)		
20:00			

▼ 크와마라 사모투 인디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수리남 안석렬 목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주름지고 머리는 하얗게 된 노부부가 평화롭게 마주앉아 미소짓는 모습도 아름답거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또한 아름답습니다. 또 이것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손, 마디마디에는 굳살이 박히고 때로는 여기저기 상처도 있지만 이 섬기는 손은 정말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사랑, 바로 이 용서의 정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난 이 용서의 정신을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한 것은 개인적

인 생활이라기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네 단계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단독으로'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면 우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단독으로 그를 만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화해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2단계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발뺌을 하거나 '그것은 자네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가?' 자네가 오해를 했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만나서 일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객관성을 띠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일리가 있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회개를 할 수 있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안되고 두 세 사람을 데리고 가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제직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그에게 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권징조례에 의해서 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권면을 하기도 하고,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수찬정지를 하기도 하고, 직분을 얼마 동안 휴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회개치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방법을 씁니다. 즉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교회가 사용한 것이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용서하는데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교회의 권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전도와 영혼 구원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뜻 도전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문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의 권징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권징에 대하여 잠들어 버려서

태만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 그만인데 그러면 교인만 빼앗기는 것 아니냐, 가만 두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을 공공연하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권징이 없는 교회는 죽은

중현장단



용서의 정신

(마 18:15-35)



신 성 종

<목사·당회장>

교회다.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사실은 살아 있는 교회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권징을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의 또 하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분별없이 지나치게 엄격한 교회, 이런 교회는 교인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는 것과 푸는 것, 이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권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9-20절에 보면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있는 담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둘째는 기도의 힘이 더 세어집니다. 사실 혼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좀 졸리고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는 마치 용원단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균형이 잘 잡히면 이것은 그야말로 금강철화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끝까지 용서하라

21-35절까지는 이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용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문 베드로의 질문에 "일곱 번 만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몇 번이든간에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많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일만 달란트의 1\100인 일백달란트를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고 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그 죄를우리가 다 계산한다고 하면 세상의 무엇으로도 표현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 그것의 1\100도 안되는 조그마한 것, 친구들이 잘못된 것, 시어머니가 잘못된 것, 아들이 잘못된 것, 며느리가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같이 하시리라" 이와같이 한다는 말은 내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용서해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게 되면 네 가지의 결과가 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용서하면 편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이 괴롭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서하면 교회는 하나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서로서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힘이 있을 때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력이다. 배이컨이 말한 대로 인간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은 독서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신자들은 더 안한다. 그러나 이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경제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3D(difficulty, dirty, danger)를 회피하고 알리기 싫어하는 정신적인 데 있기 때문에 결국 정신부터 바로 되어 있어야 우리 민족은 산다. 그러면 정신력은 어디서 오는가? 가장 올바르게 확고한 정신력은 바른 신앙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글 / 신 성 종 목사

하기농어촌전도대 보고서 / 안계동부교회를 다녀와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두 모두에게 감사를

홍 창 민

〈목사, 제 21교구·소망부·교육위 지도〉



지난 8월2일, 본 전도대는 김영수 안수집사님을 대장으로 세 분의 집사님과 여덟명의 청년 대원들이 한 팀이 되어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경 교회를 떠나,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2리에 위치한 '안계동부교회'를 향해 출발하였다. 대장을 중심으로 모든 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탓인지 대원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찼고, 금번에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5시간 30분의 여정 끝에 우리는 무사히 '안계동부교회'에 도착하여 신중국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집사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교회에 들어섰다. 처음 우리의 눈에 비친 '안계동부교회'는 10여평 남짓한 너무나 작은 건물이었다.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소를 키우던 우사(牛舍)를 개조하여 만든 건물이라고 하였다.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도착 예배 후, 우리는 목사님의 교회 소개와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안계동부교회'는 4년 전에 세워졌고, 성도는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5~6명을 포함하여 20여명이며,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매주 20여명(교사 1명) 정도 출석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약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간단한 점심식사 후에 대원들은 4조로 나누어 집집마다 찾아가 문안인사를 드렸다. 동네의 어른이신 이장님(3일동안 주민방송을 통해 집회광고를 해주셨음)을 비롯하여 새마을 지도자, 영농 후계자, 교회 앞 양로원에 쉬고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만나 인사를 드렸다. 이렇게 저녁부터 열리는 전도집회에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3박 4일의 전도활동이 시작되었다. 대원들은 다행히 비가 내려서인지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있었고, 저마다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첫째날 저녁 집회는 시작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나온 주민들 23명과 본 교회 교인, 전도대원, 타교회 교인 등 61명으로 교회당이 가득찼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 가장 많이 모였다고 담임목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날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본 교회는 전도 집회를 위하여 몇달 부터 기도하여 왔었고, 모든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매주 초청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날에는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40명의 어린이들과 어울려 성경학교를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역시 4조로 나누어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간간히 보슬비가 내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셨다. 떠나기 전 준비하면서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둘째날에도 새로 나온 주민들이 40여명이나 되었고, 어린이 25명과 함께 119명이 예배를 드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의 열기는 더해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순간이었다.

셋째날 마지막 집회에는 새로 나온 주민들이 57명, 어린이 30명을 포함하여 모두 141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교회당은 물론 목사님의 사택 마루에까지 가득찼다. 교회당 밖에 미리 스피커를 하나 설치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식시간에 집사님들이 만든 김밥이 맛있었는지 먹고 또 먹고 오뎅국에 말아먹던 어린이들의 장난스런 모습들, 마지막 저녁집회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들(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70% 이상이 할머니들이었음 농촌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집회 후에는 떡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때에 '예수님이 좋은 길 어떻합니까'라는 복음성가를 가장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난다. 지금도 한복을 곁에 입고 기뻐서 춤을 추시던 '안계동부교회' 권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3박 4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대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였다. 무엇보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올 때의 만족과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러한 만족과 기쁨은 그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진난만한 시골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비록 결신의 열매는 열매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확신한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자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수고하였다고 우리들에게

그 지역의 자량인 무공해 안계청결미를 한 봉지씩 선물해 주셨다.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번 집회에 40여만원의 감사헌금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물질로 섬기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도시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훈훈한 정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모두는 손에 손을 잡고 '배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면서 축복송을 불렀다. 떠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사모님과 권사님의 모습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주고 받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전도활동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전도활동 기간 동안 부족한 종에게 오직 말씀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서 대원들을 격려하고 통솔한 대장 집사님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비지땀을 흘리신 집집사님 부부, 직장의 휴가를 얻어 전도대에 참석한 노집사님, 그리고 전도활동을 위하여 시간과 젊음을 아끼지 않은 청년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고향 방문자 그곳에 내려와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대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집회에 참석한 이집사님 부부, 우리를 농어촌에 파송해놓고 배후에서 기도하고 협력해주신 전도위원회와 21교구 식구들,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안계동부교회에서 성경학교를 마치고 어린이들과 전도대원과 함께



■ 나의 신앙고백 ■

어린 아들을
따라서

윤 병 식

〈제 11교구〉

저는 마흔세살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원종합설비 주식회사에 기술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아파트층에 살고 있는 유치부 조 요셉이란 친구의 전도로 우리 아들 용원이란 작년 5월부터 유치부에 다녔는데, 매주 그 어린 것이 혼자 그집 식구들과 다니는 것을 보니 차츰 차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6개월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조 요셉의 아버지인 조종민 집사가 작년 11월에 있는 예수사랑 큰잔치에 같이 가자고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용원이자 엄마, 아빠도 교회에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길래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날에 동참했습니다.

어린이절에는 크리스마스날이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동네 악동들과 함께 장난치러 교회에 갔지만, 철들고는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그날은 아무 생각없이 오후 1시 예배에 참석했지만, 목사님의 말

씀과 교인들의 성실한 집회를 보고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조종민 집사가 우리집에 찾아와서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해 마지못해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주 한주 교회에 다녀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한 우리 삶의 지표이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심방도 받고 11교구에서 친교생활도 하며, 조종민 집사 식구들과 우리집 식구들이 함께 매주 목요일 가족예배도 보고, 상경통신강좌도 하면서 주님의 품속에서 말씀대로 살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신앙생활에 충실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중등1부, 둘째 딸은 초등5부 헌금위원으로, 막내는 초등1부 성가대원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있고 저와 처는 새가족위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뒤 변화가 된 것은 첫째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성실성이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음마 단계의 신앙생활이지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주님곁에 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신앙고백을 마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갱신

목회자 세미나 개강

9월 6일 개강, 총 10 주동안 진행

총헌교회 부설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은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갱신"이라는 주제하에 오는 9월6일 오후1시 개강하여 11월8일까지 총 10주간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학기는 제1교시(오후 1시~2시 30분)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되고, 제2교시(오후 2시50분~4시 20분)에는 주제에 따른 여러 목사와 교수들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 강사는 선교대회차 방문한 Norton목사의 '목회자를 위한 선교특강'을 시작으로 김창인 원로목사와 조동진, 이광복, 이종표, 림인식 목사와 민경배, 김세윤, 박봉배, 김중기 교수 등이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

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을 개설하여 지난 1990년 가을에 첫학기를 시작하여 매년 봄, 가을에 실시하고 있다.

매학기마다 천여명의 목회자가 전국에서 모여 강의를 듣고 친교를 나누며 목회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신청을 끝낸 상태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목회자들을 초대하면서 '이번 기회가 우리의 목양지가 갱신되고 나아가 한국 교회가 갱신되고 변화되는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9월 6일까지 교회 교육국(전화 552-8200 (교) 504, Fax 567-6073)으로 신청하면 된다.

목회자 세미나 일정표

날짜	제1교시	제2교시
9월 6일	목회자를 위한 선교특강	W. NORTON교수 미국 북침신대신학박사 현 리포트신학교교수
13일	한국개신교 성장사	민경배 교수 일본동지사대신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교수
20일	성경강해 로마서연구(2)	교회갱신과 칼빈주의
27일	신성종 목사	김세윤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철학박사 현 총신대 교수
10월4일	목회자의 자기 갱신과 훈련	김창인 목사 휘튼대학교명예신학박사 현 총헌교회 원로목사
11일	목회자의 자기 갱신과 훈련	조동진 목사 에즈메리 신학교신학박사 현 바울의 집 원장
18일	신약교회의 교회 성장과 구조	박봉배 교수 밴더빌트대 신학박사 현 목원대학교 총장
25일	재림신앙과 목회사역	김중기 교수 노스웨스턴대신학박사 현 연세대 신학대학장
11월1일	교회성장과 성령의 사역	이광복 목사 웨이스신학교 신학박사 현 목양교회 담임목사
8일	효과적인 목회계획과 운영	이종표 목사 캘리포니아신대원목회학박사 현 한신교회 담임목사
		림인식 목사 장신대학원졸업 현수실대이사장 노량진교회 담임목사



이슬비 전도훈련

이슬비전도훈련이 지난주 24일(목)부터 27일(금)까지 전교 안을 대상으로 열렸다. 새벽 5시20분부터 7시까지, 저녁 6시부터 9시 50분까지 열린 본 훈련은 매시간마다 본당 1,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려 그동안 어려웠던 전도의 접촉점을 이슬비 전도편지와 사랑의 편지로 가능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훈련받은 전도방법들과 연결하여 좋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29일(주일) 수원삼일교회 설교
2.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게 하소서.
3. 9월1일부터 열리는 교회설립 40주년기념 선교대회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써 이루게 하소서.
4.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에 놓고 교구별 24시간 기도회와 개인기도를 통해 힘써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하소서.

교구별 24시간 연속기도회 실시

9월 1일부터 각 교구순으로

교회는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모든 성도가 기도으로 준비하기 위해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오는 9월 1일 0시부터 23일 12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각 교구 순으로 한 교구가 하루씩 연속기도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한 교구에서 24시간을 연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교구가 이어서 기도한다. 기도 담당자는 교구에서 작성하여 실시한다. 9월1일부터 23일까지 각 날짜에 해당되는 교구가 담당 기도일이다.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교구별 24시간 기도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3. 교역자, 장로, 모든 교회 일꾼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4. 이 나라 국민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5. 이슬비 전도운동이 성공하게 하시고, '93예수사랑 큰잔치(10월17일)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6. 심령부흥회(10월 11일~15일)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강사 김장환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여주소서.
7. 교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등 각 부서가 배가되게 하소서.

9월 9일, 안수집사 부부 모임

안식령 선교사 강사로 특강도

안수집사회는 오는 9월9일 안수집사 부부가 함께 모여 안식령 선교사를 강사로하여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안수집사회는 매일 부부합동 기도회를 가졌는데 9월에는 안식령과 선교대회차 귀국한 안식령 선교사를 강사로 특강 시간을 가지며 부부간에 서로 친교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에베소서 강해설교 출간

계간총헌 여름호, 총헌의 만나도

출판국(국장 조선근 장로)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그동안 수요예배에서 강해한 에베소서를 책으로 엮어 『에베소서 강해설교』를 출간했다.

에베소서 강해설교는 총 192페이지, 가격은 3,500원으로 전국 기독교서점과 우리 교회 데이프보급소(교육관 1층)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간총헌 여름호와 총헌의 만나 9월호도 나왔다. 계간총헌은 지난번 열렸던 교사강습회의 경일용 교수와 정삼지 목사의 강의내용이 정리되어 실렸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신앙강좌, 공동체목 '40'의 의미 등이 실려있다. 또한 가정예배 안내인 총헌의 만나 9월호는 역대상을 중심으로 매일 가정예배를 위한 본문과 설명, 찬송, 기도 등이 실려있다. 9월호의 필진은 홍창민, 조동원, 한용환, 성봉환, 조운제, 김수상 목사이다.



베드로 남전도회 체육대회

9월18일(토), 양재시민공원

전도위원회(위원장 손동은 장로)산하 베드로 남전도회 협의회에서는 오는 10월17일에 있을 "예수사랑 큰잔치"를 대비한 전도대회 겸 23개 전도회 지회 활성화 및 회원배가운동과 전도회 각 지회간 친교 및 협력구축을 목적으로 오는 9월18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양재시민공원(우천시 교회)에서 '제1회 베드로 남전도회 체육대회'를 갖고 체육대회(족구, 배구)와 노방전도 및 전도찬양, 전도회 월례회 등 갖가지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4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총헌교회 남성도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입회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은 필히 부부동반하여 참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